

쓰가리무라

쓰가리무라(東荷村)와 하기(萩) 기행

: 이토 히로부미의 흔적을 찾아서

한상일

* **지은이 | 한상일** 1965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일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으며, 스탠퍼드 대학, 도시샤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 연구』, 『일본의 국가주의』, 『일본 전후 정치의 변동』, 『제국의 시선』,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공저),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등이 있다.

일본의 한국병탄 100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 세기 전의 일이지만, 그리고 병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돼 있고, 반쪽인 북한은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이 이를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의 '병탄'은 지난날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역사'이기도 하다.

1. 이토 히로부미: 아누스의 이미지(像)

1910년의 병탄 사건을 끌어내면 한국인은 곧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를 연상한다. 그만큼 그는 한국인에게 병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그가 한국병탄의 길을 닦았고, 그래서 만주 벌판에서 안중근에 의하여 죽어갔다는 것 이외에 별로 깊이 아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닐지? 그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일본 근현대사에서 그의 위상이 어떤 것이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질서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고, 일본의 한국병탄과정에서 그가 취한 역할이 무엇인지 등등에 관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입체적이고도 정확한 이미지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인에게는 병탄의 '원흉'으로 알려져 있지만, 눈을 돌려 일본 근대사에서 본다면 그는 메이지(明治) 국가건설의 최대 공로자이다. 메이지 유신 후 그는 정부조직을 제도화하고 법규화함으로써 행정부와 관료의 기틀을 마련했다.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서양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대등한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이토는 스스로 독일에 유학하여 장기간 체류하면서 유럽의 헌법을 공부했다. 그리고 메이지 헌법을 기초하여 천황제 국가체제를 확립했다.

1885년 내각책임제를 확립했고, 그 후 네 차례 총리대신을 역임하며 내각을 이끌었고, 세 차례 추밀원(樞密院) 의장, 귀족원 의장, 원로(元老)의 일원으로 메

이지 일본의 중심에 서 있었다. 또한 오늘까지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우회(政友會)를 1900년 창당하여 정당정치 길을 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이어진 강화조약을 직접 또는 배후에서 주도했고, 모든 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없는 근대 일본은 생각할 수 없다. 국내정치나 대외관계에 있어서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토는 ‘제국(帝國)’ 일본이라는 근대 국가 건설의 최대의 공헌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뛰어난 설계자였다. 동시대 인물로서 오랫동안 이토를 관찰하고 교류했던 당대 최대의 언론인이자 국민역사가라고 칭송 받는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이토를 ‘메이지시대의 태산교악(泰山喬嶽)’이라고 치켜세웠고, 또한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예일 대학의 래드(George T. Ladd) 교수는 당대 “동양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가(statesman)”라고 높이 평가했다(이토는 1901년 예일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음).

그러나 한국 역사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위상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물이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악정(惡政) 때문에 그를 암살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상하 모두가 이토를 원망한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인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이미지는 ‘악마적’ 존재와 같다. 그는 주도면밀하게 ‘점진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잠식하여 결국 병탄에 이르게 한 한국병탄 프로젝트의 고안자이고 실천자이다. 이토는 을사5조약, 헤이그사건 후 고종의 퇴위와 정미7조약을 주도함으로써 한국병탄의 길을 닦았고, 또 의병을 탄압하여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1910년 이후 36년 동안 계속된 민족말살의 가혹한 식민통치의 문을 연, 그래서 안중근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로 한국인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 개인사 또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비약과 퇴보는 있을 수 있으나 절대적 의미에서 돌출이나 단절은 있을 수 없다. 이토 히로부미의 개인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토가 막부 말기의 경험, 메이지 국가건설, 그리고 하얼빈 역두에서 되돌아 올 수 없는 길을 간 것 역시 그 연

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막부 말기의 경험은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최하층의 농민에서 무사의 반열에 오른 경험에 더해,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가르침, 기도 다카요시(木戶考允)와의 만남, 존왕양이 운동 참여, 영국 체류 경험 등은 그를 메이지의 중심인물로 만든 중요한 계기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69년이라는 그의 생애를 4곳을 중심으로 살았다. 소년기는 쓰가리무라(東荷村), 청년기는 하기(萩), 장년기와 노년기는 도쿄(東京)가 활동의 거점이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전 3년 반(1906~1909)은 한국의 서울이 생활의 중심이었다. 이 글은 이토가 장년기 이후의 활동을 준비한 생활의 근거지인 쓰가리무라와 하기에 남아 있는 이토의 흔적을 찾아보는 기행문이다.

2. 권력의 중심지 아마구치(山口)

2009년 6월 22일 아침 8시 삶의 동반자와 함께 후쿠오카(福岡) 행 대한항공에 몸을 싣고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후쿠오카 공항을 거쳐 하카타(博多)에서 신칸센을 타고 신아마구치(新山口) 역에 도착한 것이 11시 반경이었다. 역 개찰구 앞에 키가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87세의 우치다 노보루(内田伸) 선생이다. 첫 만남이지만 서로가 금방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이 알찬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치다 선생의 안내 덕분이다. 그는 현재 아마구치시 역사민속자료관(山口市歴史民俗資料館)의 명예관장(名譽館長)이라는 직분을 맡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명예직'이라고 한다. 탑(塔)에 조예가 깊은 그는 평생 아마구치 향토사 연구에 전념한 분이다. 그의 자택이 있기도 한 스젠지(鑄錢司)에 일본 육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무라 마사지로(大村益次郎)의 개인 기념관 건립을 주도했고, 완성 후 관장으로 관리했다. 1988년 한국을 방문하여 이름난 사찰과 탑을 돌아보고 대단히 감명 깊었다고 한다.

우치다 선생이 정해 준 온천장[湯田]의 자그마한 여관에 짐을 풀고 그가 안내해 주는 대로 몇 곳을 돌아보았다. 옛 조슈번(長州藩)이었던 아마구치현(山口縣)은 초대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최근의 아베 신조(安部晋三)에 이르



〈사진1〉 무로마치 시대의 대표적 예술품인 루리코지(瑠璃光寺)의 5층 목조탑

기까지 수많은 총리와 정치인을 배출한 곳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권력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아마구치의 전성기는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9~1573)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구치는 무로마치시대의 영주 오우치 히로요(大内弘世)가 교토(京都)를 모방하여 건설한 도시로서 무로마치의 역사적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무로마치시대의 대표적 건축

으로 일본 3대 명탑(名塔)의 하나인 루리코지(瑠璃光寺)의 5층 목조탑, 무로마치 최대의 천재 화승(畫僧)으로 알려진 셋슈 도요(雪舟等楊)가 만든 조에이지(常樂寺)의 정원 셋슈테이(雪舟庭), 1550년에 포교하기 위하여 아마구치에 왔던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를 기념하는 성당, 조슈번의 마지막 다이묘(大名)인 모리 다카치카(毛利敬親)와 그의 가족이 묻혀 있는 묘지[香山墓地]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메이지 이후 헤이세이(平成)에 이르기까지 요정문화와 요정정치 대표라 할 수 있는 사이코테이(菜香亭)도 방문했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이름 붙인 이 요정의 가장 큰 방에는 다다미(畳) 152장이 깔려 있다. 각 방에 걸려 있는 이노우에 가오루,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등의 친필 편액(扁額)이 이 요정의 화려했던 과거를 말해 주는 듯하다.

우치다 선생과 헤어질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일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며 귀가했다.

3. 쓰가리무라에 남아 있는 이토의 잔영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23일은 청명한 날씨였다. 이토의 생가를 방문하기 위하여 아침 8시 30분 신아미구치 역에서 다시 우치다 선생을 만났다. 이토의 생가 근처에는 식사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역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했다. 이와쿠니(岩國)행 기차[山陽本線]를 타고 이와다(岩田)역을 향했다. 상당히 많은 터널을 지나는 것을 보아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것 같았다. 기차 속에서 메이지 이후 일본 근현대사 속에서 조슈의 역할과 위상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 10월 22일 조슈의 쓰가리무라라는 빈촌(貧村)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리스케(利助), 히로부미(博文)라는 이름은 메이지유신 후 정부의 고위직을 맡으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친의 이름은 주조(十藏), 성(性)씨는 하야시(林)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무사가 아니면 성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성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가문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한 정보도 안 되는 농지를 일구면서 살아야 하는 주조의 집안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토 히로부미의 한 전기 작가는 리스케가 어렸을 때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했고, 늘 지도자적 자질을 드러냈다고 하지만 이는 과장된 기록일 것이다.

리스케가 6살 때 관미(官米)를 유용하여 더 이상 쓰가리무라에서 살 수 없게 된 아버지 주조는 홀로 출향(出郷)하여 조슈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하기(萩)로 흘러들었다. 온갖 굶은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고달픈 삶이었다. 그러나 그가 번(藩)의 창고 관리인인 이토 나오우에몬(伊藤直右衛門)의 눈에 들어 그의 머슴살이를 하면서 최저의 생활이지만 그런대로 안착할 수 있게 됐다. 처와 아들을 하기로 불러와 다시 가정을 꾸렸다. 리스케가 9살 때였다.

후사가 없었던 이토 나오우에몬은 충실한 종복인 주조 부자를 1854년 양자로 삼았다. 비록 나오우에몬이 무사계급의 최하위인 아시가루(足輕)에 불과했지만, 그의 양자가 되면서 주조 부자도 무사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사진2〉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

가지게 됐다. 리스케도 이름을 이토 슌스케(伊藤俊輔)로 바꾸었다. 비록 그것이 최하위의 계급이지만 평민 하야시 리스케가 무사 이토 슌스케로 신분상승한 것이다.

목적지인 이와다 역은 야마구치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일행 외에는 내리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의 모습을 별로 볼 수 없는 한적한 시골이다. 일본 어디를 가나 역 앞에는 택시나 버스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게 마련이지만 이와다 역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역원에게 당부해 택시를 불렀다.

역에서 택시로 20분 정도 시골길을 지나니 '이등공자료관(伊藤公資料館), 이등공기념공원(伊藤公記念公園)'이라는 작은 안내판이 보였다. 안내판을 따라 다시 5분 정도 가니 이토의 생가와 기념관이 나타났다(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山口縣光市大字東荷 2250-1).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골이다. 지금도 2~3시간에 한 번 씩 버스가 지나갈 정도로 주변에 인가도 별로 없다. 이토가 살았을 때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이토를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영역은 생가, 자료실, 저택[別邸]의 세 건물과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념관 영역 입구에 들어서니 오석(烏石)에 새겨진 이토의 절필시(絶筆詩)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는 이토가 불귀의 객이 되기 하루 전인 1909년 10월 25일 창춘(長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지은 것이다.

萬里平原南滿洲(만리 평원 남만주)

風光瀟灑一天秋(풍광은 광활하고 원대한데 가을이 천하에 걸려 있네)



〈사진3〉 자료관

當年戰跡留餘憤(지난날 전쟁의 흔적에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고)
更使行人牽暗愁(또 다시 여행자에게 어두운 근심으로 다가오네).

오석 옆에 그의 입상(立像)이 서 있고, 그 맞은편에 꽤나 큰 2층의 저택이 자리 잡고 있다. 이토가 기본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양식(洋式)과 일식(和式)을 겸한 것으로 1910년 완공됐다. 이 건물은 이토가 본래의 조상[林談路守通起氏]의 사후 300년이 되는 1910년을 기리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909년 하얼빈에서 죽은 이토는 완공된 건물을 보지 못했다.

그 옆에 자료관이 자리잡고 있다. 160여 평의 1층 건물은 메이지 풍(風)의 건축이라고 우치다 선생이 설명해 주었다. 건물은 세 개의 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자료관 입구 홀에는 이토의 청년, 장년, 노년 시절의 큰 사진 셋이 걸려 있다. 영국으로 밀항하기 직전인 23살의 이토 히로부미, 47세 제1차 이토 내각의 총리, 그리고 하얼빈으로 떠나기 직전인 69세의 사진이다. 이어지는 전시실에는 그의 별장인 오이소(大磯)의 소로카쿠(滄浪閣)에서 사용하던 가구, 붓과 벼루, 즐겨 입었던 관복(통감시절에 입었던 관복도 포함돼 있음)과 예복을 포함한 의류, 모자, 지팡이, 칼, 국내외에서 받은 많은 훈장, 도장, 동료들로부터 받은 휘호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1963년 발행한 이토의 초상이 들어 있는 1000엔(円) 지폐(紙幣) 제1



〈사진4〉 이토 히로부미의 생가

호가 전시되어 있다. 유품전시실과 이어진 또 다른 공간에는 ‘망향’(望郷)이라는 20분 정도의 기록 영상물이 상영된다. 젊은 날의 이토와 그가 하얼빈에서 죽기까지의 간략한 일대기를 영상화한 것이다.

자료관 건물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역의 맨 끝자락에 이토가 태어나서 9살까지 살았다는 옛집과 그들이 사용했던 우물이 보존돼 있다. 안내판 설명서에 의하면 본래의 생가는 이토 가족이 하기로 이주한 직후인 1850년 폭풍에 무너져 없어졌으나, 1919년 복원했고, 이토의 출생 150년(1991)을 맞아 다시 새로 다듬은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 현재 볼 수 있는 이토의 생가는 30평 남짓한 작은 전통적 초가집(茅葺—가야부키)이다. 생가 뒤에는 이토가 태어날 때 목욕시켰다는 우물이 있다. 생가와 자료관과 저택 뒤로는 작은 동산으로 만들어진 꽤나 넓은 공원이 조성돼 있다.

우리가 타고 온 택시가 1시 반에 다시 오기로 예정돼 있어 기다리는 동안 자료관 앞 잔디밭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했다. 공원을 포함한 비교적 넓은 기념영역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세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방문객도 없었다.

4. 하기: 메이지유신의 고향

서둘러 다시 신야마구치 역으로 돌아와, 우치다 선생과 작별하고 하기행 버스를 탔다. 하기에 숙소로 정한 곳이 이토가 살았던 곳이나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松下村塾)와 멀지 않기 때문에 도착하면 한 곳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끼면서 야마구치를 떠났다.

하기로 가는 고속도로는 울창한 삼림으로 싸인 주고쿠산맥(中國山脈)을 넘어간다. 차량이 별로 많지 않은 한적한 길이다. 9살의 이토가 고향인 쓰가리무라를 등지고 하기로 갈 때도 이 산맥을 걸어서 넘었을 것이다.

두 시간쯤 지나 주고쿠산맥을 넘어서니 드문드문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기 권(圏)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에 ‘쇼인(松陰)사망 150주년’이라는 깃발이 나부끼고,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다. 2009년은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지 100년이기도 하지만, 요시다 쇼인이 막부에 의하여 처형된 지 150년이 되는 해이다. 여관, 식당, 박물관, 조카마치(城下町)의 길거리 그 어디를 가도 쇼인을 기리는 깃발과 포스터가 붙어 있다. 그리고 일년 내내 크고 작은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요시다에 비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하기의 대부분은 이토가 죽은 지 100년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듯했다.

도자기[萩焼—하기야키]로도 유명한 하기는 한 쪽을 바다로 면하고 나머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항구이다. 지금은 인구 5만이 조금 넘는 작은 어항이면서 관광지이고 휴양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기는 영주였던 모리 데루모토(毛利輝本)가 1604년 바다에 면한 산[指月山] 자락에 거성(居城)을 축성하면서서부



〈사진5〉 요시다 쇼인의 신사 입구



〈사진7〉 쇼인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쇼카손주쿠

터 이 지역의 중심지가 됐다. 그리고 그 후 13대를 이은 260년간 영화를 누렸던 곳이고, 메이지유신과 메이지 국가 건설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하기 성(城)과 이어진 도시[城下町, 조카마치]는 바다를 바라보고,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다(하기 성은 1874년 해체되었으며 지금은 돌담과 성을 둘러쌌던 해자만 일부 남아 있다). 이 작은 항구도시를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발원지이자 고향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주인 요시다 쇼인과 그가 인재를 키워낸 쇼카손주쿠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요시다 쇼인과 쇼카손주쿠

1830년 하기의 하급무사 가정에서 태어난 쇼인은 6세 때부터 숙부[玉木文之進]에게서 신학문과 병학을 배웠으며 11세의 어린 나이에 번주(藩主) 앞에서 병서인 무교전서(武敎全書)를 강의할 정도로 신동이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해외 정세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쇼인은 19세에 번(藩)의 학교[明倫館]에서 병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1854년 미국으로 밀항하기 위해 시모다(下田)에 정박 중이던 페리의 흑선(黑船)에 잡혔으나 실패했다. 쇼인은 막부에 의해 체포되고 에도에

서 반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고, 그 후 하기의 형무소 [野山獄]로 이관되어 1년을 더 감옥에서 보냈다. 하기형무소 수감생활 중 그는 철학, 역사, 지리, 병학, 의학 분야의 서적을 6백여 권이나 독파했다. 자유의 몸이 된 쇼인은 1856년부



〈사진6〉 사쓰마-조슈-도사 세 번의 연합을 기념하는 석비

터 숙부가 운영하던 쇼카손주쿠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후진양성에 나섰다. 그러다 다시 안세이 사건[安政大獄]에 연루돼 막부에 의하여 1859년 10월 에도에서 처형됐다.

그가 쇼카손주쿠에서 가르친 것은 3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가 배출한 문하생은 모두 92명에 이른다. 그들은 메이지유신의 원동력이었고, 또한 유신 후 정치, 사상, 교육, 의료, 기업,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현대일본 건설에 동량이 되었다. 쇼인이 가장 높이 평가했고 쇼카손주쿠의 사천왕(四天王)으로 알려진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 구사카 겐즈이(久坂玄瑞), 요시다 도시마루(吉田稔麿), 이리에 구이치(入江九一)는 유신의 제단에 피를 뿌렸다. 쇼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기도 다카요시(木戸考允)는 유신과 메이지 건설의 주역이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아마가타 아리토모, 아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 노무라 와사쿠(野村和作), 마에바라 잇세이(前原一誠) 등이 쇼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일부분이다.

숙소인 하기혼진(萩本陣)은 하키시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요시다 쇼인 신사(神社)가 지척에 있었다(쇼인의 또 다른 신사는 東京都世田谷區 若林에 있다). 성역화된 신사는 상당히 넓게 자리잡고 있었고, 경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었다. 주차장이 넓은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버스도 여러 대 주차하고 있었다.



〈사진8〉이토가 청년기를 산 집(기와로 된 지붕은 나중에 보수된 부분)

신사에 들어서니
 왼쪽으로 사쓰마(薩摩),
 조슈(長州), 도사(土佐)
 세 번이 연합하기 위하
 여 1862년 가을 각번의
 대표[田上藤七, 久坂玄
 瑞, 坂本龍馬]가 밀회
 했던 장소를 기념하는
 석비(石碑)가 서 있고,

그 석비에는 “薩長土聯合密議之處”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1968년 메이지유신 100년을 기념하여 이곳에 세웠고, 석비의 글은 A급전범의 경력을 지닌 총리대신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썼다.

석비를 지나 좀더 안으로 들어가면 단층의 긴 건물인 요시다쇼인역사관(吉田松陰歴史館)이 있다. 탈번(脫藩)한 후 네 차례에 걸쳐 전국을 누비며 일본의 장래를 구상했던 ‘유역(遊歷)’ 과정을 포함한 쇼인의 일대기를 보여 주는 영상물과 각종의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역사관에서 좀더 안으로 들어서면 쇼카손주쿠와 요시다 쇼인이 거처했던 집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주쿠(塾)는 잿빛으로 변색된 목조에 기와를 올린 평가(平家)다. 쇼인이 학생을 가르친 다다미 8장의 강의실은 작고 소박했다. 강의를 거듭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자 옆으로 다다미 10장 반 크기의 방을 늘려 붙였다. 오늘의 일본을 있게 한 메이지유신의 산실 치고는 참으로 초라하다 싶었다.

쇼카손주쿠 맞은편에 신축하고 있는 쇼인신사보물전-지성관(松陰神社寶物殿-至誠館)이 (2009년) 10월 28일 개장을 위하여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사의 가장 끝에 사당이 서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이 줄을 지어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아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9〉 하기의 이토 히로부미 동상 〈사진10〉 별저

하기의 이토 히로부미

하기의 둘째 날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초여름이지만 바닷가라 그런지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이토 히로부미가 살던 집을 찾아 나섰다. 이토의 구택(舊宅)은 쇼인의 쇼카손주쿠에서 직선거리로 어림잡아 약 6~7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성 아래 도시인 조카마치로부터 꽤나 떨어져 있고, 집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평민이나 하급무사들이 살았던 곳이다. 이토의 가족이 살았다는 전통적 초가집[茅葺]도 29평의 작은 규모였다. 이집은 이토 나오우에몬이 하야시 주조를 양자로 맞이들이면서 그들이 거처할 곳으로 마련해 준 집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곳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자신의 꿈을 키웠다.

집 옆에는 빛바랜 이토의 입상(立像)이 서 있다. 옛집은 이토의 별저(別邸)로 이어지고 있다. 이 별저는 1907년 도쿄의 시나가와(品川 - 당시의 지명은 大井村)에 신축한 온시칸(恩賜館) 옆에 주거를 위해 지었던 이토의 사저를 하기로 옮겨 와 2001년 다시 복원한 것이다. 약 400평의 대지를 기념영역으로 조성하고 그 위에 개축한 집으로 상당히 넓다. 쇼인의 신사에는 순례자들이 줄을 이은 것에 비해 이토가 살았던 옛집과 별저를 찾는 사람은 볼 수 없다. 적막한 느낌마저 든다.

이토 히로부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1850년대 일본은 격동의 시대였다. 1853년 페리의 내항과 더불어 세가 기울어 가고 있던 도쿠가와(德川) 막부는 결

국 그동안 고집해 온 쇄국정책을 버리고 개국의 길을 택했다(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 이와 함께 일본 열도 내에서는 양이(攘夷)-좌막(佐幕)-도막(倒幕) 운동이 소용돌이쳤다.

이토는 그 격동의 시대를 이 하기에서 살았다. 그는 인생 최대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구루하라 료조(來原良藏), 스승 요시다 쇼인, 주인 기도 다카요시, 지사활동의 동지 다카스기 신사쿠, 평생 친구인 이노우에 가오루, 이토와 더불어 메이지 건설의 양대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아마가타 아리토모 등 수 많은 사람들을 이곳 하기에서 만났다.

이토에게 ‘근왕(勤王)의 뜻’과 ‘개국의 정신’을 심어 준 요시다 쇼인은 이토를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자신의 문하생 중에는 유신의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다카스기 신사쿠와 구사카 겐즈이의 자질을 가장 높이 샀다. 그리고 문하생 중 가장 나이 어린 시나가와 야지로를 귀여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시다는 이토가 “대단한 주선가(周旋家)가”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는 메이지 최대의 정치평론가였던 이케베 산잔(池邊三山)이 이토를 “팔방미인(八方美人)주의의 인물”이라고 평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가 입신출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선가적’, 또는 ‘팔방미인적’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의 미움을 사는 일이 별로 없었고, 또한 항상 뒷사람 눈에 들게 행동했다. 이토와 동시대 인물로서 조슈 번사(藩士)의 역사가인 나카하라 구니헤이(中原邦平)의 표현에 의하면 이토는 “소년시대에도 애교가 있어 남의 미움을 사는 일이 없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도쿠토미 소호에 의하면 “선배로부터 사랑받고 그들이 쓰기에 편리한[調法]” 인물이었다. 요시다 쇼인의 보살핌, 기도 다카요시의 보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후원,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면 이토는 결코 메이지의 중심인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토에 대한 동시대 인물들의 평가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가 공명심과 명예욕이 강했고, 대단히 관료적이었다는 데 모두가 일치하고 있다. 능력은 평가받았

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 메이지 초기 무비관적인 서양화에 제동을 걸면서 잡지 『니혼진』(日本人)을 통해서 ‘일본주의’ 확산을 주도했던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에 의하면 이토의 명예욕은 ‘병적’이었다. 미야케는 “이토의 공명심은 대단한 것으로서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자신의 공명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다. 때때로 (명예를 위해) 극에 달한 치기(稚氣)를 드러내곤 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명예, 서열, 훈장과 같은 것에 끝없이 집착했다. 앞에서 인용한 이케베 산잔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훈장을 만든 것도 이토 공(公)이고 귀족을 만든 것도 이토공이다. 이토 공은 명예를 표창하는 기구를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많이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권위를 갖추는 외양을 좋아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기대하고 늘 훈장을 많이 단 제복입기를 즐겨했고, 무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석상에는 항상 대검(帶劍)을 즐겨 착용했다. 출신이 미천했기 때문에 자신의 외양을 더욱 권위적으로 치장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토는 국내정치를 지배하기 위하여 파벌을 키운다거나, 또는 권력을 이용한 축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토는 그의 생애의 최대의 동지(同志)이면서 정적(政敵)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자주 비교된다. 조슈의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함께 유신운동에 뛰어 들었던 두 사람 모두 요시다 쇼인 밑에서 동문수학했다. 유신 후 이토가 관료제를 다듬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갈 때, 야마가타는 육군을 건설했다. 야마가타는 군을 배경으로 거대한 파벌 망(網)을 궁중, 정계, 관료의 세계로 넓혀나가면서 국내정치의 향방을 좌우했다. 그러나 이토는 파벌에 초연했다. 그리고 국내정치보다 대외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메이지 초기 야마가타를 위시하여 많은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권력형 부정축재에 관여됐고, 또한 권력자의 이러한 행태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토는 이상할 정도로 부에 집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대부분의 권력자들처럼 골동품, 분재, 다도, 별장 등에도 관심이 없었다. 교토에 자리 잡고 있는 야마가타의 별장 무린안(無隣庵)에 비하면 오이소의 이토 별장 소로카쿠(滄浪閣)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토는 노년에 검(劍)에 흥



〈사진11〉 저물어 가고 있는 조카마치의 거리

미를 가지고 수집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취미가 없었다. 독서 이외의 취미가 있었다면 ‘여색(女色) 즐기기’였다. 메이지 천황도 인정했던 그의 여성편력은 비밀도 아니었고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이토는 정부의 중책을

맡고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매사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양이운동이 한참일 때 앞장서서 외국영사관을 방화하거나, 필요하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총리의 지위에 오른 인물로서 전전과 전후를 통틀어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인 것이 아닌 ‘암살’을 자행한 인물은 이토가 유일한 존재이다.

늘 실리적 점진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다루었으나, 적절한 시기가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결정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결단력과 과단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을사5조약 당시 고종을 위협하기를 주저하지 않거나, 또는 헤이그 사건 이후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몰아낼 때 보여 준 태도가 그의 과격한 성품의 한 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포용력이나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미는 부족했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격을 지녔던, 이케베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압제가”였다.

일본 근현대사의 대가로 알려진 오카 요시다케(岡義武)는 이토의 한국병탄 정책과 하얼빈에서의 그의 죽음을 일본 외교의 특성과 이토의 성품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카에 의하면 메이지 대외정책의 특성은 “서양제국주의, 즉(구미의) 여러 나라에 대한 관계는 대단히 신중하여 일반적으로 종속적 색채”가 짙었으나,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대단히 공세적 태세”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본 외교의 특성을 한 개인의 성격에 비유해서 본다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토라는 사람을 닮았다고 할 수 있다. 통감 취임 전후 이토

가 한국에서 연출한 역할을 되돌아본다면, 이토는 이와 같은 ‘대한국책’(對韓國策)을 집행하는 데 썩 잘 어울리는 대표자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카는 “이토는 이 ‘국책’을 전적으로 자신의 성격대로 수행했다. 한국에 있어서 그는 정말로(중략) ‘전투적 인사’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흥변(興變)을 자초했다”고 결론짓는다. 강한 데 약하고, 약한 데 강한 이토의 성품과 일본의 외교노선이 그로 하여금 하얼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고, 결국 일본은 패망의 길을 가게 했다.

이토는 그가 쓰가리무라와 하기를 등진 후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 태어나서 9살까지 살았던 쓰가리무라는 그가 23세(1865) 때 한 번 지나쳐 갔을 뿐이다. 제2의 고향이고 입신의 본거지였다고 할 수 있는 하기도 유신 후 다시 찾은 것은 두 번뿐이었다. 이토는 미천한 신분의 초라한 과거가 남아 있는 고향을 되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토가 입신의 야망을 키우면서 청년기를 보냈던 하기의 명물 조카마치는 그 자체가 역사적 유물이다. 막말 유신의 주역들이 살고 활동했던 당시의 모습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현대적 건물은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는 옛 무사와 일반 백성들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해체된 성터 위에서 내려다보는 낙조, 그리고 지난날의 영화와 달리 인적이 끊어져 가는 조카마치에 드리운 긴 역사의 그림자는 하기의 적막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참고문헌 |

- 中原邦平, 『伊藤公実録』, 啓文社, 1910.
 徳富蘇峰, 『我が交遊録』, 中央公論社, 1938.
 三宅雪嶺, 『同時代史』, 岩波書店, 1949.
 岡義武, 『近代日本の政治家』, 文芸春秋新社, 1960.
 池辺三山 著, 滝田禎陰 編, 『明治維新三大政治家: 大久保・岩倉・伊藤論』, 中央公論社, 1930.
 『日本思想大系』 54, 「吉田松陰」, 岩波書店, 1978.
 George T. Ladd, *In Korea with Marquis Ito*,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8.